

2012년 추동시즌 아웃도어 의류의 최신정보

- 투습·방수 소재의 진화 -

의류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의 채용이 가장 빠른 분야는 아웃도어 분야이다. 이번 시즌도 업체의 참신한 소재 및 다양한 구조의 의류를 많이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2년 추동시즌의 각 업체의 전략 및 신제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테크니컬 소재 강화(데상트)

데상트는 2012년 추동시즌을 대비해 ① 초발수 스트레치 다운재킷과 HeatNavi 언더웨어 등의 신규 테크니컬 아이템 개발, ② 환편 니트설비의 강화, ③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력 상품개발, ④ 스노우 라인 및 아동용 전개 등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데상트의 테크니컬 소재로는 다운을 나노수준으로 초발수가공 처리한 “QUIXDOWN”과 소수성을 가진 폴리프로필렌과 HeatNavi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언더웨어 등이 있다. 또 야외활동 용도의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DUALIS”를 2012년 추동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창출을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유럽에서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여, 세계의 고감도 셀렉트샵에서부터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2012년 추동시즌 상품은 전개 제품수를 2011년 추동시즌의 2배로 늘린 107개로 증대하여 아웃도어 장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하려고 한다.

(2) “Cocona” 섬유(골드윈의 노스페이스)

골드윈 아웃도어스타일 사업부는 노스페이스와 헬리한센 브랜드에서 “Cocona[®] natural technology[™]”를 소재에 적용하여, 2012년 추동시즌부터 상품을 전개할 예정이다.

“Cocona[®] natural technology[™]”는 야자껍질이나 화산성 광석으로부터 만든 천연유래 활성미립자를 사용한 세계 최첨단 기술로, 미세다공 활성미립자를 방사시에 혼입하여 만든 섬유로 흡수속건성, 자외선 차단성 및 소취성을 가진 고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노스페이스에서는 3종류 20개 품목, 헬리한센에서는 2종류에 “Cocona[®] natural technology[™]”를 채용한 소재를 사용하여, 외의류부터 이너웨어까지 폭넓게 아이템에 적용하고 있다. 헬리한센에서는 “Cocona”라는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노스페이스에서는 “FLASHDRY”라는 이름으로 소재를 전개하고 있다.

(3) 음니 윈드블록(Omni-windbloc)(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콜롬비아스포츠웨어는 2012년 추동시즌 “콜롬비아”에서 8~9월은 “LONG TRAIL WALK”, 9~10월은 “Windsor Summit”, 10월~11월은 “Make your own heat”를 주제로 설정하여, 각각의 기후에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기능성 측면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은 방풍성과 통기성을 겸비한 음니 윈드블록(omni-windbloc)이다. 2가지 기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심하게 부는 환경에서 체온의 저하를 최소한으로 해주며, 활동적인 환경에서는 신체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의복내의 후덥지근함을 방지해준다.

마운틴하드웨어에서는 2011년 추동시즌부터 전개하기 시작한 획기적인 투습방수 소재인 “DRY. Q Elite”를 출시하였다. 제품전개는 고산등반 의류용도와 산악 스키 등의 스노우 스포츠용도로 진행하고 있다.

(4) 고성능 상품군 강화(미즈노)

미즈노는 2012년 추동시즌 아웃도어 제품으로 고성능 상품군인 “SERIOUS PERFORMANCE”의 상품구성을 기획하고 있다. 기능성을 중시한 다운재킷과 바지 등 새로운 아이템 4개를 추가하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웃도어 주력상품인 다운재킷은 보온성능을 향상시켰다. 다운의 충전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쿼트 폭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온성을 기존대비 30% 향상시킨 경량제품을 개발하였다. 또 높은 스트레치성을 겸비하여 움직임이 편하고, 내구성이 높은 제품 등을 새롭게 출시하였다.

또한 흡습발열 소재인 Breath Thermo를 사용한 언더웨어는 wool, heavy weight, middle weight, light weight 4가지 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플리스(fleece)와 양모로 양분되어 있던 제품군을 양모로 집약하여 재단장하고, 발열·보온성이 가장 높은 양모를 주력모델로 전개하고 있다.

♣ 섬유뉴스(2012. 2. 29)